



광주시청 광장 야외 스케이트장 오는 21일 공식 개장하는 광주시청 광장 야외 스케이트장에서 광주시체육회 관계자들이 19일 스케이트를 타며 빙질(氷質)을 점검하고 있다. ▶관련기사 2면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집앞 도로 내달라...아들 취업시켜 달라...기초수급자 지정해달라

지방선거 앞두고 악성민원 봇물

10월 이후 급증...지자체 일부 부서 업무마비

“단체장이요? 민원인 등쌀에 죽어 납니다. 선거철이 다가오니까 더 심해지네요.”
요즘 광주·전남지역의 자치단체장을 만나면 쉽게 듣는 말이다. 최근 각 자치단체의 민원창구마다 제도적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악성민원이 넘쳐나고 있다. ‘버스운전기사가 불친절하니 준공영제 폐지해달라’, ‘집 앞 도로를 내달라’, ‘아들 취업을 시켜달라’는 등 터무니 없는 민원을 제기하고는 해결되지 않으면 욕설 등을 퍼붓는다는 게 공무원들의 하소연이다.
내년 6·4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광주·전남 자치단체들이 급증하는 악성 민원에 시달리고 있다. 민선시대 이후 표를 의식해야 하는 자치단체장은 물론 공무원들도 ‘민원인=

표’라는 인식 때문에 ‘을’의 입장을 취하다보니 악성 민원인의 ‘슈퍼 갑’ 행세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행정에 악영향을 끼치는 악성 민원인에 대해서는 과감한 처벌이 요구되는 이유다.
광주시에 따르면 시가 운영중인 을(乙)을 위한 직소민원실에 지난 9월 기준 한달 평균 100여건 안팎이던 민원접수건수가 10월 이후 매일 150여건으로 늘어났다. 광주시 민원전화(120번)도 9월 기준 월 1만2000여건이었던 것이, 10월 이후 월 1만3000~1만4000건까지 증가하고 있다.
특히 민원전화 중 악성민원 등으로 판단될 경우 시청 각 실국으로 다시 연결해주는 ‘콜 전환’건수도 9월 2800여건에서 10월 3400건 등으로 늘었다.

광주지역 5개 구청과 전남지역 자치단체들도 상황은 비슷하다. 특히 선거철이 다가오면서 개인적 이익과 얽힌 민원이 급증하는 추세다.
막무가내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물론 그린벨트를 풀어달라고 하는가 하면 자녀의 취업 민원과 기초생활수급자 등으로 지정해달라는 민원도 많다. 일부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단체의 사무실이 입주할 수 있는 전용 건물 지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대부분 해결이 어려운 악성민원들로, 선거철이 다가오면서 해결해 주지 않을 경우 “선거때 보자”며 악단을 퍼붓고 돌아가는 민원 사례도 다반사다. 이 때문에 광주 서구청 등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주민이 자체적으로 고쳐야 할 아파트 놀이터는 물론 주차장까지 보수해줬다가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민원인이 공무원에게 욕설 등 폭언을 하거나 낙선운동을 거론하며 압박

할 경우 공무원집행방해나 선거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지만, 표를 의식해야 하는 민선시대 들어 법적으로 대처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광주지역 한 공무원은 “민원인과 접촉이 많은 일부 부서의 경우 악성 민원 때문에 업무를 제대로 볼 수 있을 정도”라면서 “선거철이 다가오면 기승을 부리는 악성 민원인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기초선거 공천 폐지안 23일께 확정”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장...“특·광역시 자치구 빠른 시간내 폐지”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장은 19일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와 관련, “중요한 것은 여론과 공약”이라고 밝히 오는 23일 열릴 전체회의에서 ‘폐지’로 결론이 도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터뷰 3면>
심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광주일보 등 한국지방신문협회 소속 전국 9개 유력 신문사와 공동인터뷰에서 “지역주민 여론 중에서 공천 폐지에 대해 찬성 여론이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들었으며 또 여당은 물론 야당까지 대선공약사항인데 원칙과 신뢰를 지키는 대통령이 선거공약을

왜 지키지 않는다는 말까지 듣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심 위원장은 이어 “분과위의 충분한 토론을 거쳤기 때문에 23일에 우리 의견을 확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특별시·광역시의 자치구·군 폐지 문제에 대해 심 위원장은 “한 생활권에 동일한 행정서비스가 지원돼야 하는데 자치구가 되니까 (광역시)가 갖고 있는 동일한 행정서비스의 제공이 어려워져 오히려 주민 생활에 불편과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있다”며 “빠른 시간 내에 자치구를 행정구로 전환하고 그 대신 (광역시)의원 수

를 늘려서 구정협의회 형태로 보완책을 마련하는 방안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 위원장은 ‘인구가 적은 농어촌 지역의 경우 지자체와 의회를 통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장기 과제”라면서도 “인구 2만 농촌이나 30만 도시나 (행정)체제가 똑같다”며 “2만에 시장(군수) 뽑고 의원 뽑고 하느냐, 의원을 뽑아서 그 사이에서 시장도 맡고 하는 방식으로 하느냐를 (주민이) 선택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2015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인원 첫 감소

현재 고등학교 2학년들이 내년에 보는 2015학년도 대학입시에서 수시모집 인원이 처음으로 줄어든다. 수시에서는 학생부와 논술, 정시에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영향력이 절대적으로 커진다. 조선대는 의학·치의학전문대학원을 연차적으로 학부로 전환해 신입생을 선발한다. <관련기사 7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전국 198개 대학의 ‘201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19일 발

표했다.
내년 전체 모집인원은 37만9107명으로 올해보다 407명 감소한다.
수시모집 인원은 24만3333명으로 올해보다 7887명 줄어 전체 모집인원 대비 비중이 올해 66.2%에서 64.2%로 2%포인트 떨어진다. 전년 대비 수시 모집 인원이 줄어든 것은 수시가 도입된 2002학년도 이후 처음이다.
정시모집 인원은 13만5774명으로 올해보다 7480명 늘어나고 모집비중

도 올해 33.8%에서 35%로 높아진다.
전형방법은 학생부 위주가 전체 모집인원의 54.6%인 20만6764명을 뽑아 올해보다 비중이 10.1% 포인트 증가한다. 특히 수시에서는 학생부 위주 전형으로 20만4860명을, 정시에서는 수능 위주 전형으로 11만8905명을 각각 선발해 수시는 학생부, 정시는 수능 위주로 재편된다. 한편 조선대는 의예과 88명, 치의예과 56명 등을 선발한다.
/박정욱기자 jwpark@

광주 고검장 조성욱·지검장 변찬우

법무부 차관엔 고흥 출신 김현웅

법무부는 19일 법무부 차관에 고흥 출신 김현웅(54·사법연수원 16기) 부산고검장을 임명하는 등 검사장급 이상 검찰 간부 45명에 대한 승진 및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광주고검장에는 조성욱(51·17기) 서울서부지검장이 승진 발령되고, 광주지검장에는 변찬우(53·18기) 울산지검장이 보임됐다. 검사장급인 광주고검 차장검사에는 안상돈(51·20기) 수원지검 1차장 검사가 승진 임명됐다.
이번 인사에서는 최초로 여성인 조희진(51·19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검사장으로 승진하는 등 안태근

법무부 인권국장, 이금로 대구지검 1차장, 박정식 서울중앙지검 3차장 등 7명이 ‘별’을 달았다.
검찰 내 대표적인 호남 인맥인 문무일(52·18기)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관은 서울서부지검장으로, 조은석(48·19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대검 형사부장으로 각각 자리를 옮겼다.
대검 중앙수사부의 폐지와 함께 주목을 받았던 서울중앙지검장에 김수남(54·16기) 수원지검장이 임명됐고, 대전고검장은 김희관(50·17기) 부산지검 검사장이 승진 임명됐다. 또 광주지검 차장검사를 지낸 강찬우(51·18기)

 김현웅 차관	 조성욱 고검장
 변찬우 지검장	법무부 법무실장은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이창재(48·19기) 대검 기획조정부장은 전주지검장에 보임됐다. 박성재(50·17기) 광주고검장은 대구고검장으로, 신경식(49·17기) 광주지검장은 수원지검장으로 전보됐다. /윤현석기자 chadol@

PASSION OPENNESS SCIENCE TRY
POST

우체국이 남도지역사회의 힘이 되겠습니다.



2013 제13회 남도 100년 펴쳐쓰기
사람사이에는 소통HUB!



경제에는 유통HUB!



사회에는 복지HUB!

당신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는 카드/
우체국 행복한 체크카드

남도시민 여러분! 올해 뜨거운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도 우체국은 남도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전남지방우정청